

파업 - 해고, 그 좌절과 분노 쏟아부어 페미니스트 고전 완성

비교문학자·조각가·민권운동가로 열정적 활동 계속

류숙렬/여성신문 뉴욕특파원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을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저자에 대해 전투적이고 가차 없는 극단적 페미니스트상을 연상하기 쉬울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가부장제 억압에 도전하는 성혁명과 또 그를 지키기 위한 반혁명의 되풀이로 해석한 <성의 정치학>은 그 독창성과 비범성이 일상의 상상력 체계를 벗어나 그녀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던 간에 그녀를 평범한 보통 여자로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성의 정치학>의 저자라면 얼굴생김에서 차림새, 사는 스타일에서 삶의 철학까지 모든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야만 했다.

맨해튼의 남단 거의 끝에 자리

오로 쓰고 있고 4층은 이틀테면 그녀의 살림방이었다. 그녀는 겨울의 6개월 간은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살고 여름 6개월 간은 포킵시에 있는 농장에서 지낸다. 농장일, 목수일 등 사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노동을 손수 하는 그녀는 한 층을 모두 차지하는 스튜디오를 페인트칠 하는 데 일주일 걸려 끝냈으며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성의 정치학>이 일찍이 번역되어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뜻밖이라는 듯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책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데 대해 설명을 해야

다. 일본에서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은 64년 미국에 온 다음에도 10년을 부부로 지냈다. 후미오 씨는 지금도 가깝게 살고 있어 자주 연락하는 친구사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성의 정치학>을 쓰던 시절, 매 장마다 완성되는 대로 남편 후미오 씨에게 읽어 주었다고 회상한다. 그래서 그녀의 첫 저서 <성의 정치학>은 후미오 씨에게 바쳐졌다. (<성의 정치학>의 맨 앞장에는 'For Fumio Yoshimura'라고 쓰여 있다.)

콜럼비아대 학사행정의 성차별 폭로로 해직

밀레트는 1964년부터 콜럼비

상대로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외국 학생운동의 진원지가 된 68년 봄 콜럼비아대학 스트라이크에서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행동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무조건 사면과 복직허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두드러지는 활동으로 인해 그녀는 69년초 학교에서 해고당하게 되었다.

직업의 박탈과 함께 학계에서의 추방까지 의미하는 이 해고로 인해 그녀는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이 괴로웠다. 그녀는 '굶어죽을까 걱정하며 대낮부터 마티니를 마시고 울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는 강의 하느라 쓰지 못한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고 더블데이 출판사와

떠나게 만든 것은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그녀는 <성의 정치학> 이후 1971년 창녀들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The Prostitution Papers>를 발표하고 1974년 <Flying>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레즈비인들의 사랑을 다룬 이 소설과 함께 그녀가 양성연애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곧 '정신병원'에 수용되게 되었고 그녀를 입원시킨 사람들은 바로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이 쓴 경험으로 인해 그녀는 아직도 가족의 굴레와 폭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이란 참으로 억압적인 관계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나의 진정한 존재를 부인

교육부장을 지냈고 뉴욕레디칼우먼, 레드스타킹, 레디칼 레즈비언 등 뉴욕의 주요 페미니스트 그룹에 모두 관여했다.

여성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작업장 제공

지난 78년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포킵시에 '예술촌(Art Colony)'이라는 이름의 농장을 세운 그녀는 매년 여름 여성예술가에게 이 농장을 작업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키워서 파는 이 농장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3개월, 6개월의 기간으로 이 농장에 들어오는 여성예술가들에게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오전에는 농장에 필요



케이트 밀레트는 어떤 의미에서 <성의 정치학>이 만들어낸 신화를 깨는 평범하고 소탈한 여성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비범하고 특별한 여성이었다. 케이트 밀레트를 만나리까며 난 여러가지 조심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신화와 또 그녀에 대해 알려져 있는 단편적 사실들 — 여성운동가, 정신병원입원, 양성언어자, 비교문화학자, 조각가 등 여러 범주에 걸친 그녀의 편린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조그만 4층짜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2층과 4층 모두 케이트 밀레트 스튜디오라고 문패가 붙어 있었다. 꼭대기 층으로 올라오라는 그녀의 말대로 4층으로 올라갔다. 문도 두드리기 전, 그녀는 문을 열었다.

‘한국의 여성들이 그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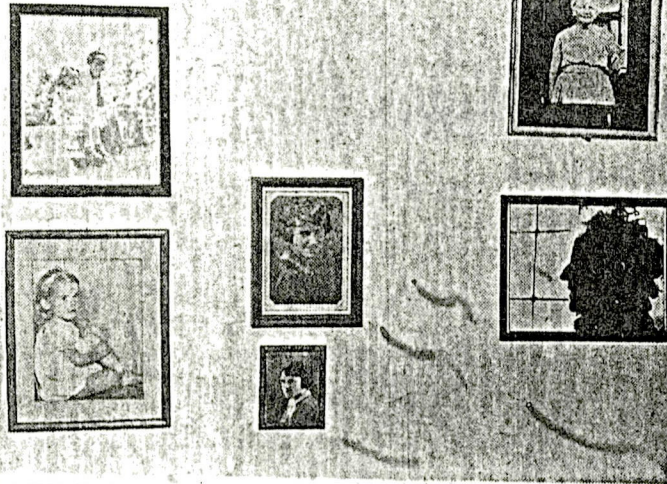
거기에는 하얗게 센 머리를 길게 한 쪽으로 묶어내린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하바드 유니버시티라고 쓰인 스웨터와 작업복까지는 온통 흰색 페인트칠로 더럽혀져 있었고 머리는 형클어져 있었다.

2층은 실크스크린작업 스튜디오

일 것 같아 한국이 저작권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적출판’(?)이 가능했다고 빈명조로 설명하자 그녀는 손을 내지으며 ‘한국의 여성들이 그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성의 정치학>이 외국에서는 커녕 미국 내에서 일마가 팔렸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런 계산이 그녀에게는 의미없는지도 모르겠다.

케이트 밀레트는 1934년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태어났다. 미네소타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고 1956년 영국 옥스포드대학으로 유학, 거기에서도 최우등생으로 졸업했다. 그 후 1970년 콜럼비아대학에서 비교문화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성의 정치학>이다. 그러나 <성의 정치학>에 이르기까지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서양문화에 식상한 그녀는 동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조각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과 미국에서 보장되어 있는 교수직을 팽개치고 1961년 무작정 일본으로 갔다. 와세다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조각을 공부하던 그녀는 요시무라 후미오라는 젊은 조각가를 만나게 되고 그와 사랑에 빠졌



스튜디오의 벽에 장식된 어린시절의 사진들

아대학 부설 여자대학인 바나드 컬리지에서 영어를 강의하며 동시에 콜럼비아대 박사과정에 직을 두고 있었다. 6년 동안 바나드컬리지에서 가르친 그녀에게는 논문이 끝나는 대로 평생교수직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그녀의 장래를 뛰어난 비교문화학자로 짐쳤다. 그러나 그녀는 학생과 여직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콜럼비아 여성해방’이라는 이름의 페미니스트그룹을 창립했고 이 그룹은 학교내의 여직원, 여교수 등의 임금실태를 조사, 학사행정의 성차별을 폭로했고 이를 토대로 대학 당국을

저서계약을 맺어 4천달러의 선금을 받고 논문집필에 몰두했다. 해고자의 좌절과 분노를 모두 집필에 쏟아부은 그녀는 약 1년만에 <성의 정치학>을 완성했고 이 책은 곧 페미니스트교전의 위치를 차지했다.

레스비언 소재 소설로 정신병원에 감금돼

그 후 그녀는 브린메 컬리지, 새크라멘토 컬리지, 버클리대 등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74년을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지 않았다. 이번에 그녀를 강단에서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온갖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입장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입히는 피해가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정당화되었지요.”

그녀의 실명에 의하면 체면을 중시하는 브루조아 가문이었던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학문적인 저서를 쓸 때는 환영했으나 레즈비언 소설을 쓰는 양성언어자일 때는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감금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1년반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야만 했다. 퇴원 후 76년 소설 <Sita>, 79년 <The Basement>, 81년 <Going to Iran>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정신병원 입원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쓴 <The Loony-Bin Trip>이 출판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각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녀는 1963년 도쿄의 미나미 갤러리전을 시발로 13차례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교외에도 여성들의 삶을 다룬 페미니스트영화<세인생(Three Lives)>을 제작 감독하기도 했다.

뉴욕에서 열리는 페미니스트미팅에는 모조리 참석했다는 그녀의 표현대로 그녀는 ‘콜럼비아 여성해방’ 외에도 5년동안 NOW

한노동을 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집필, 미술제작 등 각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된다. 자신의 공간을 갖기 힘든 여성예술가들에게 밀레트의 농장은 많은 인기를 끌며 해마다 지원자가 넘쳐 선별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당신을 페미니스트로 만들었냐는 질문에 즉각 거부장제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대답한 그녀는 곧 이어 시몬느 드보바르의 <제2의 성>과 베틀리단의 <여성의 신비>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보바르에 대한 그녀의 존경과 애정은 유별나 밀레트는 보바르가 사망하기까지 16년 동안 매년 프랑스 파리로 그녀를 방문,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흑인민권, 복역수 인권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온 그녀는 현재 정치수고문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다. 국제사면위원회 회자료들을 읽는 것이 요즘의 일과라고 밝히는 그녀는 한국의 고문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오히려 내게 취재를 하는 일성을 보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약속한 두시간이 한참 넘어 있었고 그녀는 미국의 여성들이 멈춰 있는 요즘, 한국여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며 한국여성운동의 발전을 기원했다.